

## 장동언 기상청 차장, 익산김제 집중호우 재해 현장 방문

- 철저한 기상감시로 재해 지역 피해 최소화 노력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7월 27일(목)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일대의 재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장 차장은 7월 13~18일 6일간 누적 강수량이 익산시(함라면) 596.5 mm, 김제시(진봉면)에 425.5 mm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일원의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위험기상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집중호우 재해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집중호우 재해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국 (063-249-3202)
		담당자	주무관	강현지 (063-249-3245)



| 익산시 재해 현장 방문(가운데 장동연 기상차장) |



| 김제시 재해 현장 방문(가운데 장동연 기상차장) |